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2016.9.8.(목) 배포시부터	배포	2016.9.8.(목)
책임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신진창(02-2100-2990)	담당자	최상아 사무관 (02-2100-2993)	
	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부장 최성환(02-3671-7350)		손명룡 상품개발팀장 (02-3671-7388)	
	저축은행중앙회 상무 한대호(02-397-8602)		이경연 전략사업부장 (02-397-8680)	

제 목 : 매일경제의 “저축은행 ‘사잇돌 II 대출’ 신청 첫날 흥행 참패... 50명 중 1명 승인” 제하의 기사 관련

< 보도 내용 >

- 매일경제는 9.7일 ‘저축은행 사잇돌II’ 대출과 관련하여,
 - ① “사잇돌II 대출이 이달 6일 30개 저축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 가운데, 대출 승인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...”
 - * A저축은행 50건 중 1건 승인, B저축은행 30건 중 0건 승인 등 승인을 저조 사례 언급
 - ② “...또, 사잇돌 II 대출의 저조한 승인율에 대해 SGI 서울보증의 까다로운 심사가 원인으로 지적된다.”고 보도

< 참고사항 >

- 출시 첫날의 대출 승인율과 관련하여, 언론에 보도된 저축은행의 사례(승인율 2%, 0%등)는 없는 것으로 확인
- 사잇돌 II 대출은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시장성 상품으로, 상환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보증거절 사례 분석 결과, 현재 일부 저축은행의 다소 낮은 승인율은 출시초기 ①시장의 기대에 따른 신청 집중, ②저축은행의 업무적용 과정 등이 복합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

- ① 출시초기 기대효과로, 금융기관 연체자, 서울보증보험 보험사고자 등 금융거래가 어렵거나, 상환능력 대비 보유채무가 과도한 경우에도 신청이 집중
- ② 또한, 직원교육이 미흡한 일부 저축은행에서 자격조건 부합 판단도 없이 기계적으로 심사를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

※ 이에 따라, 참여 저축은행의 1/3가량은 50% 이상의 승인율을 유지하는 등 저축은행별 승인율에 편차가 있는 상황임

⇒ 사잇돌 II 대출 운용이 점차 안정되면, 저축은행별 승인율 편차도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

- 한편, 보증이 승인되더라도, 대출자의 서류구비 등에 따라 실제 대출까지는 2~3일에서 수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
 - 출시 초기에는 신청수요가 대출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

◆ 서울보증보험과 참여 저축은행은 운용추이를 보아가며 대출 요건·보증요율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·보완해 나갈 계획

- 또한, 일부 저축은행의 운영상 미비점은 직원교육, 업무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조속히 해소하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

※ 사잇돌 II 운용실적은 별도 세부 집계하여 추석 전후 발표 계획
 * 저축은행별 확인 결과, 첫날 대비 2일차 실적이 1.2~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, 향후 1~2주간 추이를 지켜본 뒤 사잇돌 II 운용상황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